

‘포스트 코로나’ 최고의 힐링은 산림이다

화순군 80억 투입, 에코힐링휴양관 건립 등 7개 사업 추진 12개 명산 191km 등산로 사계절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

화순군이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해 산림자원을 활용해 최고의 힐링 명소를 조성한다.

20일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지역은 전체 면적의 73.2%가 산림이다. 백아산-한천 자연휴양림, 만연산 치유의숲센터, 목재문화체험장 등 다양한 산림휴양시설과 백아산 하늘다리 등 화순 8경의 수려한 자연자원이 풍부하다.

화순군은 이를 활용해 자연속 쉼터 에코힐링 휴양관 건립,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 명산 등산로 정비 등 7개 사업에 약 80억원을 투입해 특색있는 산림휴양시설 확충할 계획이다.

화순군은 올해 중점사업으로 50억원을 투입, 한천자연휴양림에 자연속 쉼터 에코힐링 휴양관을 건립한다. 올해 실시계획용역을 맡고 오는 2022년 완공할 예정이다.

휴양관은 접근성이 뛰어나고 캠핑문화 확산으로 여가 생활을 즐기는 휴양객이 크게 늘고 있는데다, 기업체 교육과 세미나 등 단체 휴양 수요에 맞춰 차별화할 계획이다.

또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연차별로 20년 이상된 낙후된 숲속의 집 신축과 리모델링을 추진,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에 중점을 둔다.

캠핑장에서 휴양림 주변으로 아름다운 자연자원 및 사계절을 감상할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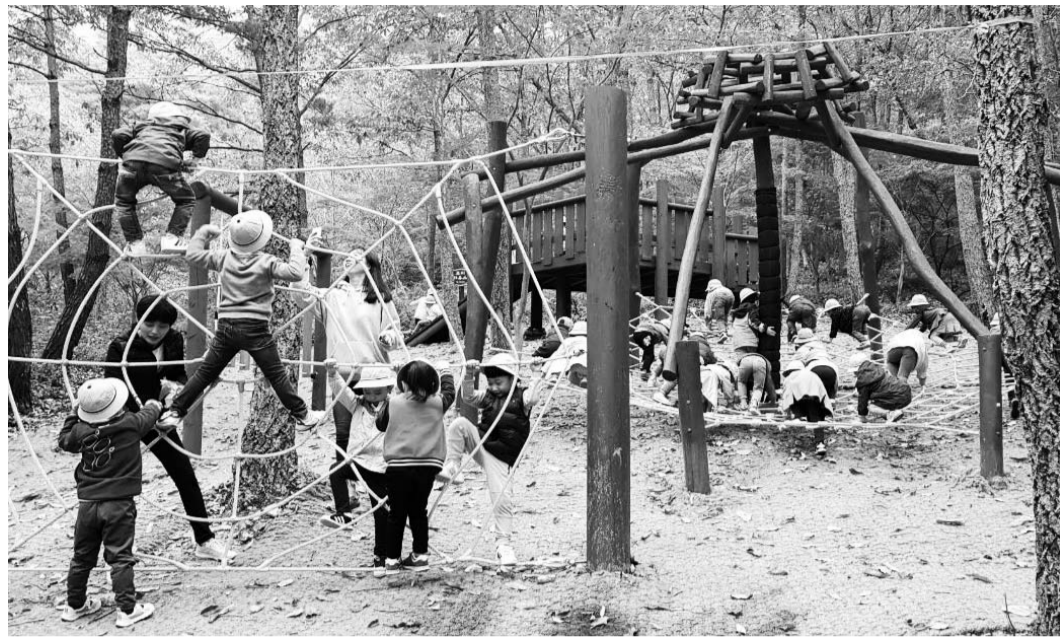
화순은 지역내 12개 명산 191km에 달하는 등산로를 갖추고 있다. 또 남도오백리 역사숲길



에코힐링 휴양관 조감도.

(115km), 무돌길(17km) 등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남녀노소가 누구나 걸을 수 있는 다양한 숲길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화순군은 사업비 7억9000만원을 투입해 사계절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을 조성하는데 힘을 쏟는다.

화순군은 또 숲에서 생애 주기별 교육을 통해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숲을 이용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유아숲체험원에는 유아숲 지도사 2명을 배치해 지역 내 60여곳의 유아기관을 대상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숲교육과 일반인·소의계층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화순 한천자연휴양림 내 유아숲체험원에서 어린이들이 숲체험을 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만연산 치유의 숲센터에서는 도심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으로 지역민은 물론 인근 도시민으로부터 힐링 명소로 호응을 얻고 있다. 혈압기·축육기 등 건강관리시스템을 구비해 차별화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후산에 자리잡고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에서는 DIY 가구 만들기, 생활소품 제작, 유아·초등학생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목재 재료를 직접 만지며 느끼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화순군은 최근 국민대 산림과학전문인력양성센터와 산림산업·생태관광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MOU)을 체결, 산림산업 전반에 대한 협업과 산림 교육, 상호 교류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유명기 화순군 산림산업과장은 “지리적 여건상 광주 등 대도시 근교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산림휴양·문화 수요에 적극 대응해 맞춤형 산림휴양서비스 제공할 것”이라며 “남녀노소 누구나 자연과 더불어 함께 즐길 수 있는 힐링공간으로서 휴양·체험·교육 등 특색있는 휴양 인프라 확충해 전국 최고 힐링 명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강진군, 농업정책자금 445억 대출 이자차액 1억5100만원 지원

강진군은 올해 상반기 농업정책자금 445억원을 1108명에게 대출 지원하고, 이자차액 1억5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림축산식품부 자금인 농업정책자금을 대출할 때 발생하는 2~3%의 대출이자 가운데 최대 1~2%의 이자를 강진군과 전남도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1%의 이자만 부담하게 된다.

농업인이 1억원을 대출했을 경우 연간 200만원씩 3년간 최대 600만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전남도에 주소지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농업정책자금 중 중도 농기계, 귀농인 주택구입 자금, 산림조합육성자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기계 구입은 1년만 지원 가능하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세계 茶人들, 담양 죽로차에 매료 담양군, 국제차문화 우수성 홍보



담양군은 지난 16-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8회 국제차문화대전(티월드 페스티벌)’에 참가해 죽로차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고 20일 밝혔다.

국제차문화대전은 국내 최대 차 전시회로, 전 세계 차 산업과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담양군과 새담양죽로차연합회(회장 김계향)는 이번 행사에서 죽로차 홍보부스를 운영, 시음 행사와 한국 전통차문화 체험, 잎차 우리기 등 다양한 다례체험도 제공했다.

대나무 이슬을 먹고 자라는 담양 죽로차는 맛, 향, 색상이 신선하고 부드럽으며 100% 수제로 생산한다.

담양군은 죽로차의 전국 홍보를 위해 지난 2016년 서울국제차문화대전, 2017-2018년 광주국제차문화전시회, 2019년 부산국제차문화산전, 올해 국제차문화대전 등 다양한 차문화전시회에 참가했다.

담양 대나무밭은 지난 6월 대나무 품목으로는 세계 최초로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등재돼 담양 대나무의 전통성과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나주시, 영산강 느리지 전망대 수국꽃 싹둑 ‘논란’

시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 불가피” 방문객 “방역대책 강구 않고 편의만”

나주시가 한반도 지형을 닮은 영산강 느리지 관광지에서 경관자원을 위해 조성한 수국길의 수국 꽃대를 싹둑 잘라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거리두기가 필요한데 이 곳은 산책로가 협소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게 나주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방문객들은 코로나19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데 방역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편의적으로 경관자원을 망쳤다고 비난했다.

20일 나주시와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 느리지 전망대 주변에 심어놓은 수국의 꽃을 면사무소 공무원을 동원해 싹둑 잘라냈다.

이 수국은 느리지 전망대 주변 바로 아래 200여m 산책로에 조성돼 있다. 이 길은 표해륙으로 유명한 이 지역 출신 최부(崔簿)를 기리기 위해 만들었다.

5월 하순부터 흐드러지게 피기 시작한 수국은 느리지 전망대를 찾는 수많은 관광객에게 또 다른 매

력과 아름다움을 줘 인기 만점이다.

특히 나주시가 포토존을 설치한 관광명소 10곳에도 포함돼 있다.

포털과 블로그, 페이스북 등 각종 SNS 등에도 느리지 전망대 수국길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주말에는 1000여명, 주중에는 200~300여 명이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주민들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야외 관광지 선호에 따라 느리지 방문객이 급증함에 따라 방역이 어려워져 아예 불가리를 없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중우 동강 한반도 지형 느리지 보존위원장은 “코로나 19 초창기에 제주·강원 등에서 유채꽃밭을 갈아엎은 사례와 유사한데 철저한 방역 대책 대신 방문객을 쫓는 손쉬운 방법을 생각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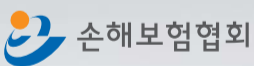
나주시 관계자는 “최근 관광권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진 데다 길이 좁아 거리두기도 여의치 않는 등 방역에 애로가 있어 잘라내게 됐다”며 “꽃도 많이 진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영산강 느리지 전망대에 조성된 수국길의 꽃대 자르기 전과 후의 모습.

〈독자 제공〉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